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여론지도력: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의 온라인 정치토론 사례 분석

김경모* · 송현진**

이 연구는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 구조, 그리고 여론지도력의 관계를 탐색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제 토론사례를 분석한 결과, 메시지 품질과 연결망 지수, 주목과 반응이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메시지 품질이 높은 토론자는 활발한 의견 교환을 유도해 토론 연결망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하면서 다른 토론자의 주목과 반응을 이끄는 여론지도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메시지 품질이 주목과 반응을 직접 유인하기보다 연결망 위치와 역할이 메시지 품질의 효과를 매개하고 있어 온라인 여론지도력이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과 구조적 위치의 복합적 영향력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론지도층의 높은 메시지 품질에도 불구하고 연결망의 구조적 효과가 전체 토론의 합리성을 제약해 고립된 숙의와 여론 극화를 유인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품질의 여론지도력을 매개하는 연결망 구조와 여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여론을 주도하는 다수여론집단에서 강하게 관찰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여론지도력 연구에서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효과가 지니는 함의를 논의했다.

주제어: 온라인 여론지도자, 온라인 정치토론, 메시지 품질, 온라인 토론 연결망, 여론지도력

1. 문제제기

인터넷 공간의 정치적 대화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적대적 소통에 의존하면서 고립된 숙의와 왜곡된 합의, 편 가르기식 논쟁이 만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Sunstein, 2001; Wojcieszak, 2008). 황우석 사태, 한미 FTA, 미 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 천안함 침몰, 4대강 개발 같은 사회갈등 문제에서 드러나듯 온라인 토론이 언제나 이성적 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윤영철 · 송현진 · 강기호 · 박민아, 2010). 합리적 토론 절차와 과정에 익숙한 사회적 숙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 토론에는 이성적 숙의를 유도하는 식견 있는 시민의 여론지도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김현주, 2005; 윤영철 외, 2010). 여론지도자와의 토론 경험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집합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Huckfeldt, 2001).

여론지도자는 온라인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여론을 주도하는 반면 시민 대다수는 여론지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김관규, 2005; 이준웅 · 김은미 · 김현석 2007; Himelboim, Gleave, & Smith, 2009). 따라서 여론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여론지도력이 발휘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은 이성적 숙의를 통한 시민 주도의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시민자치의 조건을 구명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지도자라는 복합개념을 명료하게 이론화하고 여론지도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kkmo@yonsei.ac.kr), 교신저자

** 미 오하이오 주립대 커뮤니케이션스쿨 박사과정(revelunt@gmail.com)

여론지도자는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관계적 존재다(Burt, 1999; Katz, 1957; Rogers & Kincaid, 1981; Weimann, 1982). 그러나 여론지도자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미디어 이용 같은 개인 성향이나 게시글의 품질과 토론 매너 같은 커뮤니케이션 속성에 주목하면서 여론지도력을 개인 차원의 영향력 개념으로 환원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Roch, 2008). ‘개인이 어떤 특성을 지니면 여론지도자가 되는가’라는 개체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방법론적 편향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를 지양하고자 이 연구는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에 주목해 온라인 정치토론에서 여론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이론화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 이론적 논의

1)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개념과 특성

(1) 여론지도자의 개인 특성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을 탐구한 연구는 개인의 기질적·심리적 특성에 주목하는 경우와 사회경제적·행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뉜다. 연구자들은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이 오프라인 여론지도자와 비슷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김관규, 2005; 이준웅 외, 2007; 최윤정, 2009). 개인의 기질적·심리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인성강도(personality strength)로 여론지도자를 설명한다(Noelle-Neumann, 1985; Shah & Scheufele, 2006; Weimann, 1991). 리더십, 효능감, 자신감, 능동성 등 인성강도가 높은 여론지도자는 높은 수준의 자기 확신, 혁신성, 조정능력을 보여준다(Weimann, 1994). 온라인 여론지도자도 비슷한 인성강도 특성을 공유한다(Scheufele & Shah, 2000; Wiemann, 1994). 자기행동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에 능동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¹⁾

여론지도자의 독특한 기질적·심리적 특징으로 의사소통 효능감(communication efficacy)을 꼽기도 한다. 소통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효과를 확신할수록 토론참여 의도나 속의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Scheufele, Nisbet, & Brossard, 2003). 의사소통 효능감을 여론지도자의 기질적·심리적 특성으로 간주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온라인 글쓰기 경험이 많을수록 토론 효능감이 높으며 정치참여 의도도 높다는 연구결과는 여론지도자가 높은 의사소통 효능감을 지닌 적극적인 토론참여자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김은미·이준웅, 2006; 이준웅 외, 2007).

능동적 정보추구성향도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으로 꼽는다(Scheufele & Shah, 2000; Nisbet, 2005). 지적인 호기심이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보추구성향이 강해 신문과 인터넷 같은 미디어 이용도가 높다는 것이다(김세은, 2006; 이준웅 외, 2007). 여론지도자는 나이, 소득,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린다는 사실도 자주 언급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적 호기심과 자아 효능감이 높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 정치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성향을

1) 미디어 이용정도나 인성강도는 잠재적 의견지도력의 일부를 나타내는 개인적 성격을 측정하는 변인이므로 의견지도력 자체를 의미하진 않는다(이준웅 외, 2007). 그런 점에서 여론지도자는 개인 속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규정돼야 한다는 시각이 설득력 있다(Weimann, 1994).

보인다(이준웅 외, 2007; 최윤정 2009; Shah & Scheufele, 2006; Wiemann, 1994).

이상의 연구는 여론지도자의 기질적·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행동적 특성의 관계성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품질이나 여론지도력과의 관계를 살피는 경우도 빈번하다.

(2) 온라인 토론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품질

면대면과 달리 온라인 토론은 사회적 맥락단서가 제한적이다. 게시물 작성자의 성, 연령, 신분, 교육 같은 인구사회학 특성이 가려진 채 오로지 메시지의 설득력만으로 상호작용이 결정된다(김현주, 2005). 온라인 의견지도력은 토론자의 커뮤니케이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 토론자가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근거(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강한 의견(Price, Nir, & Cappella, 2005),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언어 사용이나 높은 논변 품질(Huffaker, 2010; Rhee & Cappella, 1997), 세련된 시민성(황현서, 2008)을 보인다면 다른 토론자에게 타당하고 참신한 의견으로 인식되거나 타인의 생각과 의견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낮은 토론자는 즉각적인 참여와 이탈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어렵고,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상호작용, 나아가 특정 관점의 수용이나 상호이해를 이끌어 낼 수도 없다(김현주, 2005).

온라인 토론에서 여론지도자의 개인 특성은 커뮤니케이션 품질과도 관련성이 깊다.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고 미디어 이용이나 대인간 정보교환 등 정보 접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들의 메시지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주제 연관성이 높으며, 다양한 근거나 타당성 높은 논증방식을 보여준다(김현석·이준웅, 2007a; 김현주, 2005; 이준웅 외, 2005, 2007). 적극적 정보추구성향, 자기 확신과 혁신성, 반복되는 미디어 이용과 토론 경험(Nisbet, 2005)이 토론 효능감(김은미·이준웅, 2006)을 높이고, 결국 메시지의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동윤, 2007; Kim, Wyatt, & Katz, 1999; Wyatt, Kim, & Katz, 2000).

온라인 토론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은 메시지에 반영되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요소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과 의견지도력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 토론 맥락에 맞게(적절성) 자기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통제성)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반응성) 소통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온라인 토론에서 충분히 의견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석·이준웅, 2007a; 김현주, 2005).

시민성(civility)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성은 숙의적 토론을 가능케 하는 신뢰와 존중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맥락 단서가 부족한 텍스트 기반의 익명적 상호작용이 주도하는 온라인 상황에서 토론자의 시민성은 맥락단서의 결핍과 익명성이 적대적 소통과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윤영철 외, 2010; 황현서, 2008). 예컨대, 존칭을 사용하고 예절 바른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와 동의를 유인하는 정적 관계가 발견된다(김은미·김현주, 2004; 황현서, 2008). 하지만 높은 조회수와 동의를 유도하는 여론지도자가 항상 다른 참여자보다 훌륭한 토론 매너나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김현석·이준웅, 2007a; 김현주, 2005; 이준웅 외, 2007).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 커뮤니케이션(메시지) 품질, 그리고 여론지도력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 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영향력 간의 관계

여론지도자의 영향력(여론지도력)은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의 태도나 의견,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Rogers & Kincaid, 1981). 온라인 여론지도자 연구는 이를 조회수,

답글, 댓글 같은 온라인 게시판의 ‘주목과 반응’으로 개념화한다. 예를 들어, ‘조회수가 높고, 답글과 댓글 같은 상호작용을 많이 유발하는 사람’을 온라인 여론지도자로 정의하거나(김현주, 2005), 조회수와 동의 댓글 같이 ‘주목 유인’과 ‘긍정 반응’으로 측정된 영향력을 여론지도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기도 한다(김현석·이준웅, 2007a; 이준웅 외, 2007).

선행연구는 공통으로 토론자의 개인 특성이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높이고, 높은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많은 조회수, 댓글수, 추천수를 유발해 온라인에서 ‘대인간 영향력’을 증대시킨다고 설명한다.²⁾ 문제는 여론지도자 집단의 개인 속성이나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추종자 집단과 구별되지 않거나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등 이론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가령, 김현석·이준웅(2007a)은 여론지도자 집단과 비(非)여론지도자 집단 사이에 정치지식, 텔레비전 뉴스이용, 토론매너 같은 개인 속성은 물론 반대수와 댓글수 같은 반응지표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현주(2005)는 메시지 작성자의 인구학 속성과 메시지 품질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 이용량과 메시지 품질 사이엔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김세은(2006)도 여론지도자 집단과 비여론지도자 집단의 텔레비전·인터넷 활용 시간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만일 여론지도자 집단의 개인 속성과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추종자 집단과 다르지 않다면 선행연구의 이론적 추론과 달리 개인 속성이나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유인하는 여론지도력 효과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이준웅·김은미·김현석(2007)은 반응지표를 통해 정의한 여론지도자가 다른 토론자에 비해 항상 높은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용한 설득자’(주목도는 낮지만 영향력은 높은 집단)나 ‘관심유발자’(주목도는 높지만 영향력은 낮은 집단)가 게시글 읽기와 논변 품질 같은 차원에서 여론지도자와 비슷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슷한 커뮤니케이션 품질이나 개인 속성을 지닌 토론참여자라도 토론 연결망(discussion network)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발휘하는 영향력(여론지도력)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단순히 메시지 구성전략이나 논변기술 같은 개인 요인의 설득력 차로 환원해 추측하는 것보다 개인 속성이나 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여론지도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온라인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해 여론지도력의 작동기제를 해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4) 토론 환경과 여론지도력: 연결망 내 구조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여론 분포

여론지도자는 개인의 성격적·사회적 특성만이 아니라 대인간 연결망에서 위치와 역할도 포괄하는 개념이다(Roch, 2008). 여론지도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을 통해 타인에게 설득적 영향력을 행사한다(Nisbet, 2005). 따라서 연결망 내의 특정 위치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여론지도자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Burt, 1999; Rogers & Kincaid, 1981; Weimann, 1982). 버트(Burt, 1999)는 여론지도자를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내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의견 중개자(opinion broker)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구조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내의 위치와 역할로 여론지도자를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집단 내에서 중심위치의 행위자는 내집단(intra-group) 정보 흐름을 주도하며 다른 집단과 연결을 맺는 외연 확장자는 외집단(inter-group) 정보

2) 여론지도자의 영향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논란거리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여론지도력을 개인 수준에 국한해서 논의한다. 그러나 여론의 형성과 변화는 집합 수준의 사회현상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범위의 영향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환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Weimann, 1982, 1991). 여론지도자의 성격과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토론 참여자들이 맺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의 성격과 위치 관계를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론지도자가 자신이 속한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가 지지한다(Coleman, Katz, & Menzel, 1957; Rogers & Kincaid, 1981; Weimann, 1982; Valente & Davis, 1999). 온라인 여론지도자 역시 토론 연결망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한다는 것(Himmelboim et al, 2009; Huffaker, 2010)은 온라인 여론지도력이 연결망 내의 위치나 역할과 체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뜻한다.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은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의 총체로부터 발현되는 구조적 성격을 내포하므로(김경모, 2005),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타인의 태도나 의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론지도자라는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다(Burt, 1999; Huffaker, 2010). 그러나 온라인 토론 연결망의 위치나 역할을 직접 관찰하고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여론지도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탐구한 연구는 흔치 않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자기의견이 다수여론인지 소수여론인지 지각하는데 따라 의사 표명이나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Noelle-Neumann, 1984; Scheufele & Eveland, 2001). 특히 온라인 환경은 토론 참여는 물론 그에 따른 후속 반응과 효과가 모두 기록되고, 검색 가능하고, 또 접근 가능한 기술적 조건을 제공한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선 여론 분위기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조절해가는 사회적 압력 요인이 발생한다(김은미·이준웅, 2006). 다수의견에 속하는 토론자는 타인의 의견에 적극 반응하고 반론도 쉽게 제기하는 반면, 소수의견에 해당할 때 의견 표명 의지가 꺾이거나 신중해질 수 있다(박성희·박은미, 2007).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의견표현 수준에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의 여부 그 자체’라는 주장도 있다(한혜경, 2003). 인터넷 토론공간의 소수여론 지각은 ‘고립의 두려움’이라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대안 정보와 이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의견표현 수준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집단에 속하면서도 꾸준히 토론에 참여한다면 실제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지닌 여론지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개인의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 여론지도자와의 토론 경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여론 환경에선 매스 미디어가 개인의 여론지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론준거집단을 확인시키거나 여론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여론 분위기를 살피는 개인의 동일시를 촉진하기 때문이다(Price, 1988). 온라인 토론 환경에선 여론지도자가 이 역할을 맡는다. 토론 연결망의 중심위치에서 높은 품질의 메시지를 통해 믿음만한 판단의 근거 틀을 제시함으로써 토론공중의 여론지각을 도울 뿐 아니라 이들의 행동과 태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가령, 온라인 여론지도자는 내집단 추종자의 동조 반응을 이끄는 동시에 견해가 서로 다른 외집단 토론자의 반박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소수 여론지각과 여론지도자의 구조적 위치가 상호작용할 가능성에도 온라인 토론 과정을 경험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2)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영향력 모형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기존 연구는 온라인 여론지도력을 통합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한 채, 몇몇

하위 차원 간의 관계를 분절적으로 탐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 변인 간의 관계(김세은, 2006; 김현주, 2005; 최윤정, 2009), 개인 속성과 커뮤니케이션(메시지) 품질의 관계(김현석·이준용, 2007a; 김현주, 2005), 또는 온라인 상황의 영향력과의 관계(김관규, 2005; 김현석·이준용, 2007a; 이준용 외, 2007; 최윤정, 2009) 가운데 일부를 제한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여론지도력의 핵심을 구성하는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 또는 여론 분포나 여론지가 개념을 접목해 통합적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경험 검증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³⁾ 연결망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여론지도자의 개인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추종자의 주목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Burt 1999; Weimann, 1994). 이 같은 이론적 가정은 연결망 구조와 여론지각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인과모형을 세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 커뮤니케이션 품질,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 여론지도력 간의 관계

선행연구의 성과를 종합하면, 온라인 여론지도력이 작동하는 기제는 여론지도자의 ① 개인 속성과 ②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③ 토론 환경(연결망에서의 위치와 역할, 여론지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④ 다른 토론자에게 영향력(주목과 반응)을 발휘하는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들 변인군의 관계구조는 <그림 1>의 이론적 분석틀로 정리할 수 있다.⁴⁾

조건	행동	구조	결과
개인 성향	커뮤니케이션(메시지) 품질	토론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 여론 환경	주목과 반응, 영향
기질적·심리적 특성	메시지 요인	토론 연결망 구조	주목과 반응
① 의사소통 효능감	① 강한 의견(유인가문장)	① 연결의 수	① 조회수
② 정보추구성향	② 합리적 의견(논증문장)	② 연결의 방향	② 댓글수
③ 인성강도	③ 메시지길이(문장/단어 수)	③ 중앙성(centrality)	
	④ 메시지짜임새(내러티브 완결성)		개인 수준 영향
개인 속성	⑤ 메시지선택력(논거 다양성)	여론 환경	① 의견 동조
① 사회경제적 배경	메타커뮤니케이션요인	① 여론지각(다수/소수)	② 의견 반박
② 교육수준	① 시민성	② 여론분포(여론 프레임)	
③ 미디어·매체이용	② 의사소통능력		집합 수준 영향
④ 정치 관여도			① 토론 합리성
			② 여론 변화

<그림 1>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영향력 과정

- 행위자들의 의견, 태도, 행동은 단독적이라기보다 상호의존적인 단위들이므로 행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작용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느냐에 따라 연결망 구조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역시 달라진다(김경모, 2005).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정도 마찬가지다.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토론 연결망의 구조가 개인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Huckfeldt, Beck, Dalton, & Levine, 1995; Mutz, 2002). 따라서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론지도자가 속한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환경 요인의 작동방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라인 여론지도력은 조건→행동→구조→결과의 관계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인과기제로 설명된다. 온라인 토론 상황에선 메시지만 가시적이라는 점에서 여론지도자의 개인 성향은 모형에서 단지 배경 조건으로만 설정된다. 따라서 온라인 여론지도력의 실질적 선행요인은 행동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이며, 의견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 토론 연결망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동과 구조의 선행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결과로 온라인 여론지도력이 발휘된다.

온라인 토론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고, 지적 호기심(정보추구성향)이나 자아 효능감이 높은 참여자의 메시지 품질이 더 높다(Shah & Scheufele, 2006; Wiemann, 1994). 사회경제적 지위나 미디어 이용이 정치지식이나 정치 효능감, 나아가 토론 의도나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특히, 반복되는 미디어 이용이나 토론 경험은 효능감은 물론 의견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1999; Shah & Scheufele, 2006). 실제로 온라인 의견지도자는 일반 토론공중에 비해 토론 효능감과 매체 이용 수준이 높고 더 많은 근거 주장을 동원해 논변을 구사한다(이준웅 외, 2007). 신문 뉴스 이용이나 인터넷 토론 참여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이야기의 구조적 복잡성이나 논변 품질이 높으며, 이들이 동료 토론자로부터 더 많은 찬성 반응을 이끌어낸다(김현석·이준웅, 2007a). 따라서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이 커뮤니케이션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높은 주목과 긍정 반응을 유발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론지도자가 위치한 연결망의 구조적 속성도 여론지도력과 체계적 관련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연결망 형성에는 유유상종의 원리(homophily principle)가 작용하고 좁은 세상(small-world) 현상도 자주 관찰된다(Barabasi & Albert, 1999; Lazarsfeld & Merton, 1954; Newman 2001). 소수의 결점(node)이 연결(link)을 독점하는 동시에 전체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중앙성(centrality)이 높아지는 반면, 대다수 결점 간에는 직접 연결이 제한돼 중심-주변부의 불평등 구조가 발현하는 것이다.⁵⁾ 온라인 토론 맥락에서, 이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토론자 간의 의견 교환(연결)이 활성화되는(유유상종의 원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메시지 품질을 지닌 토론자들이 전체 연결망에서 연결 정도를 독점하고 중심위치를 점유한다는 선택적 연결의 원리를 의미한다. 온라인 조건에선 오로지 메시지의 품질과 설득력에 주목해 누구와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토론자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전체 연결망 구조나 개인의 연결망 내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메시지 품질이 높은 여론지도자는 온라인 토론 연결망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결망의 위치 효과(position effect) 연구에 따르면, 연결망에서 중심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대체로 성과(보상, 생산성 등)가 뛰어나며, 이들의 중개로 정보와 자원의 교류가 활발하다(Burt, 1999; Granovetter, 1973). 온라인 토론 맥락에서 연결망의 위치 효과가 발휘되는지 경험 검증한 연구는 드물지만, 여론지도자가 온라인 연결망에서도 중심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토론자보다 더욱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Bodendorf & Kaiser, 2009; Huffaker, 2010; Merwe & Heerden, 2009). 높은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바탕으로 일반 토론자의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일정한 준거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망에서 여론지도자가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와 역할(Burt 1999; Weimann, 1994), 또는 여론 환경에서 지각되는 다수-소수 여론분포(Noelle-Neumann, 1984)가 여론지도자의 구조적 위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온라인 여론지도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중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경험 연구를 통한 체계적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2) 연구문제

여론지도자(여론지도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목해온 개인의 사회경제적·행동적 특성이나 커뮤니

5) 이러한 선택적 연결의 원리가 발현되는 불평등한 연결망 구조는 척도 없는 연결망(scale-free network)의 특성을 보인다(Watts & Strogatz, 1998). ‘끼리끼리’ 모이는 군집 성향이 매우 강함에도 몇몇 스타 또는 허브(연결성이 높은 결점)에 의해 모든 결점이 짧은 단계 만에 서로 연결된다.

케이션 품질, 주목과 반응으로 상징되는 영향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⁶⁾ 이 연구는 경험 분석이 부족했던 여론지도자의 구조적 환경 요인에 주목해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 여론지도력이 작동하는 인과기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다음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 연구문제 1. 온라인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 주목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온라인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과 영향력의 관계에서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론지각(다수의견/소수의견)에 따라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이 여론지도자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서울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었던 클리앙(<http://dien.net>) 사이트를 분석대상으로 택했다. 이질적 참여자가 모인 온라인 토론은 정치적 목적을 띤 공간보다 레저나 취미 공유 커뮤니티에서 주로 발생하고(Wojcieszak & Mutz, 2009) 자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일상 대화에서 정치적 의견 교환이 더 잘 일어난다는 점(Wyatt, Katz, & Kim, 2000)을 고려했기 때문이다.⁷⁾

분석사례는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토론으로 한정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의제였는데, 보육·복지, 세금·재정 등과 연결되면서 20~40대 젊은 유권자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요 정책의제로 부각된 바 있다(서울경제, 2010; SBS, 2010)⁸⁾. 분석대상 커뮤니티는 20~40대 네티즌이 주로 활동하고 있어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 관련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질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검색기능으로 ‘급식’, ‘무상급식’, ‘의무급식’, ‘부자급식’, ‘세금급식’을 키워드 삼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의 머릿글과 머릿글에 붙는 댓글까지 수집해 전수 분석했다. 분석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2개월이었다. 주요 뉴스매체도 이 기간에 서울시 무상급식

- 6)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심리적·행동적 특성은 온라인 토론 참여자를 설문조사해야 수집할 수 있다. 실제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신뢰할 만한 주관적 변인을 측정하기 힘들었던 여건 때문에 이 연구는 온라인 내용분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변인으로 분석범위를 한정했다. 같은 이유로, 커뮤니케이션 품질도 내용분석 가능한 메시지 품질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론적 분석틀에서 일부 경험 변인만 선택해 여론지도력의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개인 특성은 가려진 채 오직 메시지 교환만으로 전개되는 온라인 토론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제한적 분석이 이론적 전제와 경험 분석의 조건을 크게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 7) 분석대상 사이트는 2011년 1월 17일 현재 누적 글이 456,000여 건, 하루 평균 작성 글이 1,000여 건에 달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념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성향의 참여자가 일상적으로 정치토론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조사돼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여론형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머릿글과 댓글에 필명이 노출돼 있으며, 검색기능을 통해 관련 게시글을 쉽게 갈무리할 수 있는 기능적 이점도 고려했다.
- 8) SBS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태도를 투표 결정에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74.8%로 가장 높았다. 4대강 사업은 63.3%, 그 뒤를 세종시와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 천안함 사건이 이었다(SBS, 2010).

문제를 집중 보도했기 때문⁹⁾ 분석기간 설정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석한 머릿글은 181건, 댓글은 2,916건으로 모두 980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한 사람당 평균 3.2건의 게시글을 올린 셈이다.

2) 주요 변인의 개념화와 측정

온라인 여론지도자란 높은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론 참여자를 말한다.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온라인 토론의 여론지도력 발휘 기제가 ① 토론 메시지의 품질 ② 토론 연결망 내 구조적 위치와 역할 ③ 주목과 반응의 관계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고 보고 세 변인군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주요 변인의 개념정의와 조작화는 다음과 같다.

(1)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

온라인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은 ① 총문장수 ② 논증 문장수와 유인가 문장수 ③ 내러티브 완결성 ④ 논거 다양성으로 하위 변인을 설정했다. 메시지 품질이 메시지의 양(정보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준웅·김은미, 2006; Rhee & Cappella, 1997)에 따라 토론자의 게시글(머릿글, 댓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총 문장수를 셸다.

선행연구는 공통으로 개인의 의견 품질을 측정하는 요소로 주장과 관련된 추론과 논거의 수(Cappella, Price, & Nir, 2002; Price et al., 2005)를 꼽는다. 메시지의 유인가(valence)도 토론상황에서 의견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토론사안에 대한 감정적 관여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Price et al., 2005). 따라서 개인의 총 문장수를 셸 다음, 논증 문장과 유인가 문장을 구분했다. 유인가 문장(valence statement)은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 긍정 혹은 부정 정향이 표출된 문장을, 논증 문장(argument)은 유인가와 함께 이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된 문장을 말한다.¹⁰⁾ 유인가 문장은 강한 의견을, 논증 문장은 합리적 의견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완결성은 게시글에서 드러나는 이야기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완결성을 말한다. 하나의 게시글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로 제시되는지, 이야기(narrativity)의 충실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러티브 완결성이 높을수록 글의 의미적 짜임새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담론은 보통 이야기 구조로 제시된다(윤영철·김경모 2009; Gamson, 1992; van Dijk, 1988). 하나의 텍스트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언급될수록, 또 그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메시지는 이야기 구조의 완결성을 갖추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더 쉽게 수용되면서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김현석·이준웅, 2007a).¹¹⁾ 내러티브 완결성은 다음 절차를 따라 측정했다.

9)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는(아시아투데이, 2010) 네이버, 다음, 네이버를 대상으로 분석기간 동안 ‘서울시 무상급식’ 뉴스를 검색한 결과(11,968건), 2010년 1월 1일부터 분석기간 직전까지 11개월의 결과(10,223건)나 분석기간 직후 한 달 보도(2,287건)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뉴스 보도가 집중됐으며, 해당 기간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0) 토론자 980명의 평균 문장수는 3.65개(SD=4.89)였다. 평균 논증 문장수는 2.12개(SD=3.51), 평균 유인가 문장수는 1.47개(SD=2.05)로 나타났다.

11) 내러티브 완결성은 메시지의 의미 짜임새, 곧 이야기 구성요소의 충실성과 완전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구조적 복잡성’(김현석·이준웅, 2007a)과 유사하다.

무상급식 논란에 참여한 980명 토론자의 모든 게시글을 분석해 귀납적으로 5개의 이야기 구성요소와 각 요소에 해당하는 51개의 대표진술문을 추출했다. 이야기 구성요소는 사안의 특정 의미를 현저하게 드러내기 위한 상징장치(Gamson & Modigliani, 1987; Wolfsfeld, 1997)로서 ① 주장·입장 ② 행위자 묘사/표현/예시 ③ 사건·행위의 묘사/표현/예시 ④ 주장·입장의 근거/이유 ⑤ 전망/합의/해결책 같이 메시지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기능적 요소를 말한다. 대표진술문이란 각 이야기 요소의 내용을 대표할만한 문장 전형을 말하는데, 무상급식 토론의 게시글에서 해당 이야기 구성요소별로 추출했다.¹²⁾ 토론자의 게시글마다 이야기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진술문의 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 완결성 변인을 구성했다.¹³⁾

온라인 토론 참여자는 다양한 약식 논증전략을 사용한다(김현석·이준웅, 2007b). 토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설득력을 높이고자 이야기 구조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논증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토론자가 구사하는 논증전략이 다양할수록 메시지의 품질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시글에서 다양한 논증전략을 사용한 문장이 많을수록 논거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토론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논증전략은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거쳐 ① 역사적 사례나 예시 ② 토론자 개인이나 의미 있는 타자의 경험 ③ 비유와 비교 ④ 상황 기술과 약식논증 ⑤ 원칙과 명분 ⑥ 공표 사실이나 근거자료 제시로 구분했다. 6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다양성 산출 공식(Scheufele, et al., 2006)을 적용해 논거 다양성을 측정했다.¹⁴⁾

(2) 토론 연결망 내 구조적 위치와 역할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을 가늠하고자 연결망 분석을 통해 토론자 개인 수준에서 연결망 지수(network indicators)를 산출했다. 개인 수준의 연결망 지수는 연결의 수와 방향, 중앙성으로 구분해 측정할 수 있는데, 역할의 영향력 범위에 따라 국지적 성격과 전체적 성격의 지표로 나누고 지표의 구체적인 의미와 산출방법도 달라진다(Wasserman & Faust, 1994). 선행연구를 토대로 ① 연결정도 ② 인접중앙성 ③ 사이중앙성 ④ 위세중앙성으로 구분해 토론자가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와 역할을 살펴봤다.

연결정도(degree)는 하나의 결점이 이웃 결점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수다. 연결정도가 높은 토론자일수록 연결망의 국지적 범위에서 영향력이 높다. 여기서 결점은 개별 토론자를 말하고, 연결은 ‘머릿글→댓글’, ‘댓글→답글’, ‘댓글→댓글’의 상호작용 관계로 토론자간 의견교환이 관찰된 경우를 말한다. 연결정도를 통해 여론지도자의 활발한 활동과 정보교환 의도(최윤정, 2009)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Bodendorf & Kaiser, 2009). 관계적 속성을 반영하는 연결정도는 토론자가 수신한 댓글(내향연결수)과 송신한 댓글(외향연결수)에 기초한 연결 관계의 수로 조작 정의했다.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른 모든 결점들과 최단경로거리(geodesic)¹⁵⁾의 합의 역수로 정의하되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까지 포함해

12) 이야기 구성요소(주제구성요소)와 대표진술문(주제진술문) 설정과 추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절차는 김경모·황유선·오소현(2009), 김현석·이준웅(2007a), 윤영철·김경모(2009)를 참고하라.

13) 내러티브 완결성 = $\sum D_i S_i$, 여기서 D_i = 이야기 구성요소, S_i = 각 이야기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대표진술문 수. 내러티브 완결성의 평균은 9.35(SD=18.58, Min=1.00, Max=168)였다.

14) 논거 다양성 변인은 0에서 1까지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록 토론글에서 구사하는 논증전략이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평균은 .25(SD=.28, Min=.00, Max=.79)였다.

15) 최단경로거리란 임의의 결점 i에서 다른 결점 j로 가장 빨리 도달하는 최소 단계수, 곧 연결망 내에서 한 쌍의

연결망 내 모든 결점과의 경로거리를 고려한다. 직접 연결이 적더라도 전체 구성원에게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의 수가 최소이므로 빠르게 다른 행위자들에게 도달하거나 다른 행위자들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토론자보다 빨리 전파할 수 있어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다.

사이중양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임의의 한 결점이 다른 결점들 사이의 최단거리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빈번하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 두 결점이나 허부집단을 이어주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Burt, 1999). 따라서 해당 결점을 통하지 않고선 다른 행위자들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자(broker)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한다(Freeman, 1979). 다른 토론자가 가지지 못한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거나, 그 흐름을 통제하거나, 가장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세중양성(eigenvector centrality)은 보나시치 권력지수의 한 형태다(Bonacichi, 1987).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점과 연결될수록 자신의 위치 역시 중심부로 올라서는 식으로 해당 결점의 영향력이 가중되는 중앙성 지수다. 추종자들이 지향하는 위치에서 자기 주변으로 정보 흐름을 집중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 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측면까지 반영한 지위(prestige) 개념을 의미한다(Burt, 1982). 위세중양성으로 여론지도자의 영향력을 측정할 결과, 지명식 설문으로 측정할 여론지도력과 체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we & Heerden, 2009).

모든 연결망 지수는 전체 토론자의 의견교환 관계를 포괄하는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을 구성한 뒤¹⁶⁾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 UCINET 6.0으로 계산했다.

(3) 주목과 반응, 그리고 영향력

토론 과정에서 여론지도력이 미치는 영역을 주목과 반응, 그리고 영향력으로 구분해 종속변인으로 삼았다. 토론자의 머리글에 대한 주목은 조회수로, 반응은 댓글수로 측정했다.¹⁷⁾ 토론자의 영향력은 개인 수준에서 동조 댓글수와 반박 댓글수로 나뉘고, 집합 수준에서 토론 합리성을 설정했다.

‘주목 유인’이나 ‘상호작용 유발’을 뜻하는 조회수와 댓글수는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주고받는 의견 내용과 여론 형성을 반영한 수치정보가 아니므로 타당도 높은 여론지도력 지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여론지도력을 포착하고자 댓글을 동조 댓글과 반박 댓글로 분류했다. 머리글의 글쓴이에게 댓글로 찬동(지지)하는 경우는 동조 댓글로, 이견을 달거나 비판하는 경우 반박 댓글로 처리했다.¹⁸⁾

마지막으로, 여론지도층 토론자들이 무상급식 논란을 합리적으로 이끌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토론 전체의 합리성 정도에 주목했다. 주장의 근거 또는 정당화의 맥락을 제시했는가 여부로 메시지의

결점들을 이어주는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16) 토론자 i 가 토론자 j 의 머리글에 댓글을 올린 경우, 980×980 행렬 W 의 i 행 j 열에 1의 값을 부여($w_{ij}=1$)하는 식으로 i 와 j 간에 연결이 생성된다. 댓글에 댓글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토론자 i 의 머리글에 토론자 j 가 댓글을 올린 것과 토론자 j 의 댓글에 토론자 i 가 답글을 올린 것은 관계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연결이다($w_{ij} \neq w_{ji}$).

17) 게시일과 작성자를 확인하고 분석기간이 종료된 2월 1일자로 머리글의 조회수와 댓글수를 파악했다. 머리글 당 조회수 평균은 216회($SD=673.75$), 댓글수 평균은 16.11개($SD=11.36$)였다.

18) 댓글에 댓글이 달린 경우, 댓글-댓글 뭉치를 머리글로 취급해 분석했다. 머리글당 동조 댓글수 평균은 5.25개($SD=7.16$), 반박 댓글수의 평균은 2.23개($SD=5.72$)였다.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류성진·고홍석, 2007; 윤영철 외, 2010; 한혜경, 2005). 개별 메시지 수준에선 개념적으로 논증 문장수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토론에 막 참여한 초기와 달리 논쟁 과정에서 이전에 노출되고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 경험을 쌓는 동안 토론자는 고품질 메시지를 접하면서 메시지의 합리성 수준을 높여가는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이 높고 토론 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토론 합리성도 높을 것이다. 토론자별 메시지에서 논증 문장수(a)와 유인가 문장수(b)의 구성비(a-b/a+b)로 집합 수준의 토론 합리성을 측정했다¹⁹⁾.

(4)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여론지각

토론자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야당(민주당)과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온라인 토론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를 다수여론으로, 반대와 중립 쪽은 소수여론으로 정의했다. 토론자별로 게시글을 모아 읽고 다수여론집단에 속하는지 소수여론집단에 속하는지 판별했다.²⁰⁾ 다수여론집단은 874명(89.18%), 소수여론집단은 106명(10.82%)이었다.

(5) 메시지 변인 측정의 코더 간 신뢰도

두 명의 코더가 주요 변인을 코딩했다. 코딩지침에 따라 애벌코딩한 뒤 토론과 합의를 거치며 불일치를 수정하는 식으로 코딩훈련을 실시했다. 홀스티 기준으로 .8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한 뒤 본격 코딩을 시작했다. 표본의 약 15%에 해당하는 500개 문장과 토론자 147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계산한 최종 코더 간 신뢰도(Krippendorff α)는 정치적 입장(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자의 찬반 여부) .87, 문장유형(논증 문장과 유인가 문장의 구분) .91, 머리글 정향(머리글에 나타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 정향의 구분) .94, 댓글 정향(머리글에 대한 댓글의 동조 또는 반박의 구분) .88, 논증전략(논증문장의 근거와 추론규칙 유형의 판별) .92였다.²¹⁾ 이를 토대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세부 변인을 계량했다.

4. 분석결과

1) 무상급식 토론 연결망의 일반 특성

전체 토론기간의 연결정도와 그 빈도분포의 관계분석²²⁾이나 무작위 연결망 시뮬레이션²³⁾ 결과,

-
- 19) 집합 수준의 토론 합리성을 재는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합리성 역시 다차원적이고 상황맥락에 따라 정의된다(윤영철 외, 2010). 하지만 토론 반응을 다르게 유도하는 문장유형의 성격(Price, et al., 2005)에 주목해 논증 문장과 유인가 문장의 구성비로 토론의 합리성 경향을 측정했기 때문에 집합 수준의 토론 분위기와 경향을 나타내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토론 전 과정에서 만일 유인가 문장만 사용했다면 토론 합리성은 -1의 값을 가지지만 논증 문장만 사용했다면 +1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했다.
- 20) 명확한 의견 표명을 유보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는 중립으로 처리하되 최종적으로 소수의견집단으로 분류했다. 분석 토론기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바꾼 토론자는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집합 수준의 영향력 변인인 여론 변화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 21) 조화수, 추천수, 중앙성은 코더의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야기 구성요소와 대표진술문은 게시글의 모든 문장을 대상으로 두 명의 코더가 일일이 합의해가며 분류했기 때문에 따로 신뢰도를 재지 않았다.

무상급식 토론 연결망은 전형적인 ‘좁은 세상’ 속성을 드러냈다(Watts & Strogatz, 1998). 소수의 중심 결점이 대다수 주변부 결점을 집중적으로 거느리는 중심-주변부 구조가 나타나 온라인 토론 연결망에서 영향력을 주도하는 여론지도자가 존재함을 짐작케 한다.

2) 메시지 품질, 연결망 위치, 주목과 반응 사이의 관계

메시지 품질과 연결망 위치, 주목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표 1). 메시지 품질의 세부 변인은 모든 연결망 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메시지 품질이 높은 토론자일수록 토론 연결망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향-내향연결수, 사이중양성, 위세중양성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다시 말해, 메시지 품질이 높은 머릿글에 댓글이 자주 올라와 국지적(local) 범위에서 의견교환이 활발해지면서(외향연결: $r=.480\sim.756$, 내향연결: $r=.254\sim.507$) 토론 연결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토론자(집단)를 주도적으로 연결하는 토론자(사이중양성: $r=.322\sim.628$)와 같은 의견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토론자(위세중양성: $r=.327\sim.699$)가 연결망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메시지 품질이 높을수록 전체적(global) 범위에서 높은 주목을 끌어 댓글을 광범위하게 유도하는 경우(내향인접: $r=.331\sim.456$)도 관찰되지만, 다양한 참여자들과 활발한 소통이 열리도록 신속하게 유도한 것은 제한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외향인접: $r=.125\sim.163$).²⁴⁾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괄호 안은 N)

변인군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						주목과 반응, 영향력					
	외향 연결수 (980)	내향 연결수 (980)	외향인접 중양성 (980)	내향인접 중양성 (980)	사이 중양성 (980)	위세 중양성 (980)	조회수 (120)	댓글수 (241)	동조 댓글수 (241)	반박 댓글수 (241)	토론 합리성 (980)	
메시지 품질	총문장수	.756***	.506***	.149***	.456***	.623***	.628***	.042	.302***	.196**	.215**	.163**
	논증 문장수	.617***	.381***	.125***	.425***	.530***	.428***	-.006	.264***	.108	.267***	.375***
	유인가 문장수	.715***	.480***	.138***	.331***	.521***	.699***	.094	.229***	.237***	.050	-.252***
	내러티브 완성성	.718***	.507***	.139***	.430***	.628***	.602***	.049	.299***	.179**	.241***	.152***
	논거 다양성	.480***	.254***	.163***	.364***	.322***	.327***	.041	.203**	.111	.165*	-.039
위치와 역할	외향연결수						.083	.091	.020	.102	.045	
	내향연결수						.375***	.563***	.570***	.174**	.022	
	외향인접중양성						-.094	-.174**	-.281***	.058	-.007	
	내향인접중양성						.191*	.177**	.129*	.105	.101**	
	사이중양성						.216*	.471***	.325***	.317***	.054	
위세중양성						.321***	.383***	.462***	.024	-.070*		

주: * $p<.05$, ** $p<.01$, *** $p<.001$

- 22) 각 결점이 보유한 연결수(X축)와 그 빈도분포(Y축)를 대수(log) 변환해 선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모형의 기울기가 -1.21, 설명력(R^2)은 .789로 나타나 전형적인 멱함수 분포가 나타났다.
- 23) 무상급식 토론 연결망과 동일한 크기(980명)와 밀도(평균밀도=.0045)의 무작위 연결망(random network)을 50회 생성한 뒤 이들의 평균을 무상급식 토론 연결망의 해당 지표(지름=11, 평균 경로거리=4.69, 평균 군집계수=.0985)와 비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무작위 연결망의 지름은 평균 19.04(SD=1.67), 평균 경로거리의 평균 7.62(SD=.09), 군집계수의 평균은 .0045였다. 무상급식 토론 연결망의 지름과 평균 경로거리가 무작위 연결망의 해당 지표보다 훨씬 낮고 군집계수는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좁은 세상’ 속성이 드러났다.
- 24) 외향 인접중양성이 높은 토론자(광범위하게 여러 토론자의 글에 댓글을 다는 토론자)는 대체로 메시지 품질이 낮은 편이었다. 메시지 품질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빈번하게 여기저기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론 타인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이 여론지도력을 발휘하는지 주목과 반응의 변인과 상관관계를 살펴봤다.²⁵⁾ 어떤 메시지 품질 변인도 조회수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댓글수와는 모두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메시지 품질이 곧바로 다른 토론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 품질 높은 메시지에 많은 토론자가 댓글을 달아 응대한다는 것이다. 또 메시지 품질은 동조나 반박 댓글수와도 일정한 정적 상관을 보여 개인 수준에서 여론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논증 문장은 반박 댓글만 유도($r=.267, p<.001$)하고 유인가 문장은 동조 댓글만 유도($r=.237, p<.001$)하는 점이다. 논거 다양성도 반박 댓글만 유도했다($r=.165, p<.05$). 어떤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은 단순히 의견 동조자를 모으는데 그치지만²⁶⁾ 근거와 이유를 동반한 합리적 글쓰기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숙고하고 반박 댓글로 이견을 제시하는 논쟁을 유발하는 조건²⁷⁾임을 시사한다. 대체로 메시지 품질이 높을수록 집합 수준의 토론 합리성이 높아지는 관계도 드러났다. 메시지의 정보가 풍부하고($r=.163, p<.001$)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며($r=.375, p<.001$) 글의 짜임새가 있을수록($r=.152, p<.001$) 전체 토론도 합리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²⁸⁾

마지막으로,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도 주목과 반응 변인과 상당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양한 중앙성의 의미를 고려할 때, 대체로 국지적 범위든 전체적 범위든 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해당 토론자의 의견에 더욱 많은 토론자가 주목해 열람하고(내향연결: $r=.375, p<.001$, 내향인접: $r=.191, p<.05$), 많은 댓글이 달리며(내향연결: $r=.563, p<.001$, 내향인접: $r=.177, p<.01$), 더욱 더 의견을 지지하고 찬동하는(내향연결: $r=.570, p<.001$, 내향인접: $r=.129, p<.05$)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의 역할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상황도 존재했다. 사이중앙성이 높은 토론자는 중개자나 문지기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한다. 특히 이견의 노출, 곧 이질적인 의견 요소를 서로 연결시키는 외집단 접촉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위치에 있다. 사이중앙성이 높은 토론자일수록 해당 토론자의 의견을 반박하는 댓글수가 증가하는 경향($r=.317, p<.001$)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위세중앙성이 높은 토론자는 주로 유유상종의 원리가 작동하는 내집단 강화 역할을 수행했다. 반박 댓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채($r=.024, ns$), 사이중앙성과 동조 댓글수의 관계($r=.325, p<.001$)보다 동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경향($r=.462, p<.001$)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25) 조회수는 분석기간 동안 머리글을 올린 토론자 수($n=120$)가 기준이다. 각종 댓글수(동조, 반박 포함)는 댓글-댓글 댓글 뭉치를 또 하나의 머리글처럼 간주한 뒤 여기에 다시 댓글을 단 토론자 수($n=121$)를 더해 나온 크기다($n=241$). 토론자별로 게시글이나 댓글 뭉치가 2개 이상인 경우 평균값으로 대체해 개인별 게시글 수의 효과를 통제했다.

26) 내집단 공고화가 엄밀한 논거·주장의 검토보다 자기 생각과 비슷한 의견을 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견해(Price, Nir, & Cappella, 2006)와 일치한다.

27) 토론자가 논거와 주장을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면 생각이 다른 토론자의 비판적 검토와 반응을 유발하므로 이견 노출과 숙의를 촉진한다(Mutz, 2002; Price, Cappella, & Nir, 2002).

28) 논증 문장수가 많을수록 토론 합리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논증 문장수($r=.375, p<.001$)나 유인가 문장수($r=-.252, p<.001$)와의 관계패턴은 토론 합리성의 조각정과 일치한다.

29) 메시지 품질이 높은 토론자가 국지적 수준에서 의견 전파를 주도하지만(외향연결: $r=.480\sim.756$) 국지적으로 다른 토론자에게 활발하게 댓글을 다는 이 같은 행위가 해당 토론자의 직접적인 여론지도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외향연결: $r=.020\sim.102, ns$). 이는 토론 연결망의 구조와 의견교환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지도자를 단순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토론자'로 정의해선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은 외향-내향 연결수나 외향-내향 인접중앙성이 메시지 품질이나 영향력 변인과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 엇갈린 패턴임을 보여준다. 국지적-전체적 수준의 활동 정도와 연결의 방향을 고려해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을 정밀하게 포착할 때 여론지도력의 작동기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이다. 그런데 사이중앙성이 높은 토론자가 반박 댓글과 동조 댓글 둘 다 유발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무상급식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이 서로 상대 의견에 노출되도록 이어주지만,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각자 내집단 강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세중앙성이 높은 토론자는 주로 강한 의견의 표출에 의지해($r=.699, p<.001$) 오직 지지와 동조 반응만 이끌고 전체 토론의 합리성을 낮추는($r=-.070, p<.05$) 쪽으로 논쟁을 유도한다는 상관분석 결과도 이 같은 추론을 보강한다. 결국, 같은 메시지 품질의 토론자라도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의 성격에 따라 여론지도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상관분석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온라인 여론지도력의 원천은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이라는 점이다. 메시지 품질이 높을수록 무상급식 논쟁에서 다른 토론자의 반응을 이끌고 개인적, 집합적 수준의 영향력도 나타났다. 또 메시지 품질이 높은 토론자는 토론 연결망에서 중심부에 위치했다. 이들은 고품질의 메시지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유발해 토론자들을 이전에 노출시키거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주도했다. 실제로 토론 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한 토론자는 구조적 위치와 역할에 따라 동조 여론을 유인하거나 반대 여론을 결집시킴으로써 여론지도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 품질의 토론자라도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에 따라 여론지도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메시지 품질의 어떤 변인도 조회수와 직접적인 상관 없이 있었지만 메시지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연결망 지수는 조회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메시지 품질이 높다고 해서 항상 다른 토론자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다른 토론자의 주목을 받고 동조나 반박의 댓글 반응을 이끌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 품질이 높을수록 전체 토론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연결망 지수와 토론 합리성의 관계는 상관분석만으로는 불투명했다. 결국, 세 변인군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온라인 토론에서 여론지도력이 작동하는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3) 메시지 품질과 여론지도력의 관계에서 연결망 구조의 매개효과

상관분석에 따르면 메시지 품질이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메시지 품질과 영향력(주목과 반응)의 관계 역시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 패턴이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높은 커뮤니케이션 품질의 토론자가 항상 많은 댓글을 유발하거나 다른 토론자들로부터 지지와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김현주, 2005; 이준웅 외, 2007). 메시지 품질의 영향력이 독자적인지, 연결망 구조를 거쳐 행사되는 간접 영향력인지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중앙성과 위세중앙성을 매개변인 삼아 경로모형을 설정, 토론 연결망 구조가 메시지 품질의 여론지도력을 어떻게 중재하는지 검증했다.³⁰⁾

30) 매개변인이 단일지표이고 메시지 품질과 중앙성의 왜도와 첨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 대신 경로분석(Sobel test)을 실시했다(Barron & Kenny, 1986). 인접중앙성은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약하고 일정한 패턴을 드러내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분석에서 뺐다.

<표 2> 사이중양성의 매개효과 검증

(간접효과의 괄호 안은 Sobel's Z value)

경로	조회수 (N=122)		댓글수 (N=241)		동조 댓글수 (N=241)		반박 댓글수 (N=241)		토론 합리성 (N=980)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총 문장수	총	2.876 (6.20)	.042	.376 (.08)	.302***	.188 (.06)	.196**	.165 (.05)	.215**	.027 (.01)	.163***
	직접	-14.245 (8.38)	-.209	.013 (.09)	.010	-.013 (.08)	-.014	.020 (.06)	.026	.036 (.01)	.212***
	간접		.226** (Z=2.91)		.289*** (Z=6.06)		.207*** (Z=4.15)		.187*** (Z=3.74)		.049 (Z=-1.94)
논증 문장수	총	-5.56 (8.37)	-.006	.440 (.10)	.264***	.139 (.08)	.108	.274 (.06)	.267***	.088 (.01)	.375***
	직접	-16.298 (9.70)	-.178	.072 (.11)	.043	-.086 (.09)	-.067	.151 (.07)	.146*	.113 (.01)	.482***
	간접		.166** (Z=2.92)		.239*** (Z=6.36)		.189*** (Z=4.88)		.130*** (Z=3.44)		-.107*** (Z=-5.53)
유인가 문장수	총	16.182 (15.56)	.094	.702 (.19)	.229***	.561 (.15)	.237***	.095 (.12)	.050	-.101 (.01)	-.252***
	직접	-13.302 (20.07)	-.078	-.206 (.21)	-.067	.174 (.18)	.074	-.381 (.14)	-.201**	-.154 (.01)	-.385***
	간접		.139* (Z=2.25)		.266*** (Z=6.70)		.147*** (Z=3.67)		.226*** (Z=5.53)		.133*** (Z=6.67)
내러 티브 완결성	총	.824 (1.52)	.049	.094 (.02)	.299***	.043 (.02)	.179**	.046 (.01)	.241***	.007 (.00)	.152***
	직접	-3.085 (2.03)	-.185	.005 (.02)	.015	-.008 (.02)	-.033	.014 (.02)	.073	.009 (.00)	.195***
	간접		.215** (Z=2.82)		.290*** (Z=6.37)		.217*** (Z=4.43)		.071*** (Z=3.49)		-.043 (Z=-1.69)
논거 다양성	총	88.579 (217.23)	.041	6.948 (2.36)	.203**	2.826 (1.77)	.111	3.613 (1.51)	.165*	-.069 (.07)	-.039
	직접	-173.039 (227.62)	-.080	1.120 (2.23)	.033	-.470 (1.77)	-.019	1.382 (1.55)	.063	.006 (.07)	.003
	간접		.099** (Z=2.77)		.157*** (Z=5.68)		.120*** (Z=4.55)		.094*** (Z=3.72)		-.042** (Z=-2.97)

주: * p<.05, ** p<.01, *** p<.001

<표 2>와 <표 3>은 각각 사이중양성과 위세중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다.³¹⁾ 분석결과, 메시지 품질 변인은 일부 직접효과 경로를 제외하고 대체로 사이중양성이나 위세중양성과 상호작용해 간접적으로 여론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메시지 품질은 조회수와 어떤 상관도 없었지만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 효과 덕분에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발휘했다. 위세중양성과 사이중양성의 매개효과는 주목(조회수)은 물론 반응(댓글수)과 반응 방향(동조 댓글수), 그리고 집합 수준의 토론 합리성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온라인 토론공증은

3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 간의 상관분석(표 1)을 기초로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매개변인이 회귀모형에 투입되면 대체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지면관계로 매개효과 분석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고 소벨 검증(Sobel test)한 결과만 제시했다.

32) 메시지 품질과 반박 댓글수를 연계하는 위세중양성과 사이중양성의 매개효과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이중양성은 모든 메시지 품질 변인이 반박 댓글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도록 매개효과를 발휘하지만 위세중양성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반박 댓글수를 낮추도록 매개효과를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사이중양성과 위세중

메시지 품질이 높다고 해당 토론자의 게시글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해 눈에 띄는 토론자의 글에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여론지도력이 메시지 품질과 토론자의 구조적 위치 간의 복합적 영향력을 전제한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메시지 품질은 온라인 여론지도력의 원천이지만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의 매개 없인 그 효과의 구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Huffaker, 2010; Roch, 2008).

<표 3> 위세중앙성의 매개효과 검증

(간접효과의 괄호 안은 Sobel's Z value)

경로	조회수 (N=122)		댓글수 (N=241)		동조 댓글수 (N=241)		반박 댓글수 (N=241)		토론 합리성 (N=980)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총 문장수	총	2.876 (6.20)	.042	.376 (.08)	.302***	.188 (.06)	.196***	.165 (.05)	.215**	.027 (.01)	.163***
	직접	-14.372 (7.09)	-.211*	.149 (.09)	.120	-.107 (.07)	-.111	.233 (.06)	.305***	.057 (.01)	.342***
	간접		.278*** (Z=4.19)		.197*** (Z=4.22)		.331*** (Z=7.15)		-.097* (Z=-1.98)		-.178 (Z=-1.77)
논증 문장수	총	-5.56 (8.37)	-.006	.440 (.10)	.264***	.139 (.08)	.108	.274 (.06)	.267***	.088 (.01)	.375***
	직접	-11.621 (8.37)	-.127	.246 (.11)	.147*	-.080 (.08)	-.062	.303 (.07)	.294***	.116 (.01)	.496***
	간접		.155*** (Z=3.84)		.141*** (Z=4.92)		.207*** (Z=7.02)		-.034 (Z=-1.19)		-.121*** (Z=-7.53)
유인가 문장수	총	16.182 (15.56)	.094	.702 (.19)	.229***	.561 (.15)	.237***	.095 (.12)	.050	-.101 (.01)	-.252***
	직접	-46.446 (20.73)	-.271*	-.245 (.26)	-.080	-.411 (.19)	-.174*	.126 (.17)	.066	-.159 (.02)	-.398***
	간접		.359*** (Z=4.19)		.307*** (Z=5.58)		.408*** (Z=7.13)		-.016 (Z=-.24)		.146*** (Z=4.94)
내러 티브 완결성	총	.824 (1.52)	.049	.094 (.02)	.299***	.043 (.02)	.179**	.046 (.01)	.241***	.007 (.00)	.152***
	직접	-3.047 (1.71)	-.182	.039 (.02)	.126	-.026 (.02)	-.109	.063 (.01)	.327***	.014 (.00)	.305***
	간접		.253*** (Z=4.05)		.188*** (Z=4.33)		.314*** (Z=7.25)		-.095* (Z=-2.08)		-.153*** (Z=-6.63)
논거 다양성	총	88.579 (217.23)	.041	6.948 (2.36)	.203**	2.826 (1.77)	.111	3.613 (1.51)	.165*	-.069 (.07)	-.039
	직접	-149.722 (209.84)	-.070	3.636 (2.30)	.106	-.622 (1.61)	-.025	3.825 (1.58)	.175*	.146 (.07)	.082*
	간접		.130*** (Z=3.71)		.116*** (Z=4.54)		.163*** (Z=5.87)		-.012 (Z=-.50)		-.120*** (Z=-6.74)

* p<.05, ** p<.01, *** p<.001

양성의 매개효과가 모두 동조 댓글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사이중앙성이 높은 토론자는 이전에 노출되는 외집단 접촉을 유인해 논쟁을 유발하지만 위세중앙성이 높은 토론자는 내집단 연결을 유도해 동조 여론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상관분석의 추론을 확증한다. 그러나 논증 문장과 반박 댓글, 유인가 문장과 반박 댓글의 관계에선 위세중앙성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논증 문장의 속의 유도 경향이 연결망 구조의 영향과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메시지 품질이 토론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직접효과와 별도로 연결망 위치와 역할이 토론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위세중양성과 사이중양성 모두 토론 합리성을 낮추는 매개효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³³⁾ 결과적으로, 여론지도층 토론자의 높은 메시지 품질이 전체 토론 과정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임에도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선 속의보다 여론 극화(polarization)를 유인하는 쪽으로 전체 논쟁을 이끌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4> 메시지 품질과 토론 합리성의 관계에서 여론지각에 따른 중양성의 매개효과

(간접효과 괄호 안은 Sobel's Z)

경로	다수여론 × 위세중양성		소수여론 × 위세중양성		다수여론 × 사이중양성		소수여론 × 사이중양성		
	토론 합리성 (N=980)		토론 합리성 (N=980)		토론 합리성 (N=980)		토론 합리성 (N=980)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총 문장수	총	.027 (.01)	.163***	.027 (.01)	.163***	.027 (.01)	.163***	.027 (.01)	.163***
	직접	.052 (.01)	.312***	.027 (.01)	.160***	.036 (.01)	.213***	.027 (.01)	.163***
	간접		-.149*** (Z=-6.68)		.004 (Z=.50)		-.050* (Z=-2.30)		.001 (Z=.16)
논증 문장수	총	.088 (.01)	.375***	.088 (.01)	.375***	.088 (.01)	.375***	.088 (.01)	.375***
	직접	.110 (.01)	.469***	.090 (.01)	.385***	.106 (.01)	.451***	.092 (.01)	.392***
	간접		-.094*** (Z=-6.64)		-.010 (Z=-1.32)		-.076*** (Z=4.96)		-.017 (Z=-1.89)
유인가 문장수	총	-.101 (.01)	-.252***	-.101 (.01)	-.252***	-.101 (.01)	-.252***	-.101 (.01)	-.252***
	직접	-.141 (.02)	-.354***	-.106 (.01)	-.265***	-.148 (.01)	-.369***	-.106 (.01)	-.265***
	간접		.101*** (Z=3.64)		.012* (Z=2.38)		.117*** (Z=5.97)		-.013* (Z=2.39)
내러 티브 완결성	총	.007 (.00)	.152***	.007 (.00)	.152***	.007 (.00)	.152***	.007 (.00)	.152***
	직접	.012 (.00)	.278***	.007 (.01)	.148***	.009 (.00)	.194***	.007 (.00)	.151***
	간접		-.126*** (Z=-5.93)		.004 (Z=.50)		-.042* (Z=-1.98)		.001 (Z=.14)
논거 다양성	총	-.069 (.07)	-.039	-.069 (.07)	-.039	-.069 (.07)	-.039	-.069 (.07)	-.039
	직접	.114 (.07)	.064*	-.057 (.07)	-.032	-.010 (.07)	-.005	-.058 (.07)	-.032
	간접		-.102*** (Z=-6.14)		-.007 (Z=-1.35)		-.033** (Z=-2.79)		-.006 (Z=-.93)

주: * p<.05, ** p<.01, *** p<.001

4) 메시지품질과 토론 합리성의 관계에서 연결망 위치와 여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사이중양성과 위세중양성 모두 메시지 품질과 상호작용을 통해 토론 합리성을 낮춘다는 결과로부터 더 무상급식 논쟁에서 여론지도층 토론자가 여론 극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33) 게시글이 논리적이고 이야기(narrativity)도 풍부하며 논증전략이 다양할수록 전체 토론의 합리성도 높았지만, 사이 중양성과 위세중양성의 매개효과를 통해선 이 같은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호의적인 여론이 지배했던 전체 토론기간 동안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소수여론집단이 합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논란에 참여했던 사정³⁴⁾을 감안, 이 같은 집합적 영향력이 모든 여론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검토하고자 토론집단의 여론지각과 연결망 효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탐색했다(표 4).

분석에 따르면, 오직 다수여론집단에서만 중앙성(사이와 위세)과 메시지 품질의 상호작용 효과가 전체 토론의 합리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했다. 특히, 사이중앙성을 통한 유인가 문장수의 간접효과가 ‘소수여론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다수여론집단의 토론자’(다수여론×사이중앙성)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했지만($\beta=.117, p<.001$) ‘다수여론집단과 상호작용하는 소수여론집단의 토론자’(소수여론×사이중앙성)에서는 부적 관계($\beta=-.103, p<.05$)로 나타났다. 외집단 접촉 상황에서 소수여론집단의 여론지도층 토론자들이 무상급식 논쟁을 합리적으로 이끌려 했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는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다수여론이 지배하는 토론구조에서 강한 의견의 표출(유인가 문장)을 통해 다수의견이 주도하는 여론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쪽으로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수여론집단에 속하는 여론지도자들이 내집단(다수집단) 토론자 사이에 선 동조 댓글을 유발해 같은 의견을 서로 확인하는 동일시으로써 고립된 숙의(enclaved deliberation)를 촉발하고, 외집단(소수집단)과의 경쟁관계에선 강한 의견(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유인가 문장)의 제시를 통해 토론 합리성을 제약함으로써 지배적 여론구조가 소수여론집단에 강한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⁵⁾ 이 결과는 다수-소수 여론지각(귀속집단)에 따라 연결망의 구조적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의 가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이다.

5. 결론과 함의

이제까지 온라인 정치토론의 여론지도력 연구는 메시지 품질과 영향력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파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연구는 온라인의 실제 토론 과정을 분석해 토론 연결망 구조가 여론지도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망 중앙성 지표는 메시지 품질과 여론지도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메시지 품질이 높은 토론자일수록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조회수와 댓글수 같은 주목과 반응은 물론 동조 댓글이나 반박 댓글 등 개인 수준의 영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다른 토론자보다 탁월했다. 온라인 여론지도력의 원천이 커뮤니케이션 품질이라는 결과(김현석·이준웅, 2007a; 김현주, 2005; 이준웅 외, 2007)를 뒷받침한다.

34) 다수여론집단에 비해 소수여론집단의 토론자는 더 많은 문장을 사용해($3.52<4.73, p<.05$) 논란에 참여하면서 논증 문장을 더 많이 쓰고($2.01<3.05, p<.01$) 게시글의 내러티브 완결성도 더 높았다($8.83<13.61, p<.10$). 다수여론집단의 토론자보다 훨씬 많은 반박 댓글을 달았고($90<7.07, p<.001$) 그럼에도 토론 합리성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02<.18, p<.01$).

35) 분석 토론기간을 시기별로 구분해 토론 연결망의 구조 변화를 관찰했을 때 토론 막바지에 이르면서 소수여론집단의 토론자가 대거 온라인 토론 연결망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배적 여론구조와 소수 여론지각이 일종의 침묵의 누적(spiral of silence) 효과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

유인가 문장과 동조 댓글, 논증 문장과 반박 댓글 사이에 체계적 연관성이 발견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 문장이 많은 게시글일수록 다른 토론자의 비판적 검토를 유도하는 경향이 발견됐으며, 단순히 방향성만 제시하는 유인가 문장이 많은 토론글은 의견 동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 논증이나 이견 노출이 숙의와 관련 있음을 강조한다(Mutz, 2002; Price et al, 2002). 토론 과정의 의견 불일치 경험이 항상 부정적 감정과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김동윤, 2007). 의견이 다른 토론자 간에 근거 제시와 논증이 풍부한 토론 경험이 있다면 이견 노출은 토론자의 정치참여 의도를 높일 수 있다(노성중·민영, 2009).

둘째, 매개효과 검증결과 토론자의 연결망 내 위치와 역할이 메시지 품질의 효과를 상당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토론에서 커뮤니케이션 품질이 여론지도력의 근원이지만 그 영향력은 토론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여론지도력의 잠재적 선행변인으로서 메시지 품질은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도움을 받을 때 명백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가 대부분 연결망 위치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여론지도자의 개인 속성에 초점을 맞춰 영향력을 논의한 것과 견줄 때, 이는 비슷한 메시지 품질을 지닌 토론참여자들이 때때로 제한적인 여론지도력을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결과다. 여론지도자의 연결망 내 위치는 다른 토론자들이 여론지도자의 글을 선택적으로 읽고 반응하는 행동이 시간적으로 쌓이는 의견교환 과정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속성을 반영한다. 대다수 토론공중이 온라인 여론지도자의 품질 높은 글과 주장에 주목하고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면서 토론 연결망이 형성되고 이렇게 구조화된 연결망의 위치는 다시 메시지 품질의 효과를 매개하면서 일정한 여론지도력이 발휘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여론지도력이란 여론지도자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즉각적이고 개체적인 효과라기보다 읽고 반응하는 다수의 토론공중이 특정한 해석과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을 통해 집합적으로 조형되는 누적적이고 구조적인 효과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준웅, 2009).

마지막으로, 여론지각의 방향성과 연결망의 구조적 성격에 따라 연결망 위치의 매개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메시지 품질의 여론지도력을 매개하는 연결망 구조와 여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논란을 주도하는 다수여론집단에서만 강하게 관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배적 여론 환경이 소수여론집단의 정치토론 참여에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소수여론집단의 여론지도층은 여론지도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려한 반면, 다수여론집단의 여론지도층은 사회 통제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지도자와의 토론 경험이 집합 수준에서 사회적 숙의 대신 여론 극화와 침묵의 누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조건과 기제에 대해 더욱 주의 깊은 관찰과 심도 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온라인 토론에서 관찰되는 메시지의 질과 연결망 위치에 집중해 여론지도력의 인과기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사회경제적 속성이나 의사소통능력, 시민성 같은 메시지 외적 차원과 연결망 속성의 관계까지 검토하지 못했다. 지명식 설문을 통해 인지된 여론지도력을 측정하고 연결망 내 구조적 위치 관계와 체계적으로 교차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매스미디어의 이슈 관련 보도나 개인이 속한 오프라인 토론 연결망이 가지는 이질성 효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작업 역시 후속연구가 주목할 주제다.

Ⅰ 참고문헌

- 김경모 (2005).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탐색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권 2호, 162~206.
- 김경모 · 황유선 · 오소현 (2009). 위험사회와 언론 보도 프레임분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촛불집회’ 내용분석.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충남대학교. 2009년 4월 24일.
- 김관규 (2005). 인터넷의 양방향 · 공개 커뮤니케이션 장을 창출한 적극적 발신행위자의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1권, 51~84.
- 김동윤 (2007). 가상공간에서의 정치토론과 시민적 태도의 형성: 사회자본 개념요소로서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9권, 102~139.
- 김세은 (2006). 시사분야 의견지도자 성향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1호, 91~114.
- 김은미 · 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65~94.
- 김현석 · 이준웅 (2007a). 온라인 정치 토론의 이야기 속성: 이야기 주제 구조 및 이야기의 구조적 복잡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5호, 168~196.
- _____ (2007b). 인터넷 정치 토론의 담론적 특성. 『한국언론학보』, 제51권 4호, 356~384.
- 김현주 (2005). 사이버 여론 지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2005』, 217~264.
- 노성중 · 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제53권 3호, 173~197.
- 류성진 · 고흥석 (2007). 전자게시판 토론 참여자의 토론 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 『언론정보연구』, 제44권 1호, 5~35.
- 박성희 · 박은미 (2007).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 유형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여론조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9호, 284~323.
- 서울경제 (2010. 3. 18). 서울시민 10명중 8명 ‘무상급식 찬성’. 『서울경제』.
- 아시아투데이 (2010. 10. 25). 마이너 포털의 반격 ‘모바일 춘추전국시대 연다’. 『아시아투데이』.
- 윤영철 · 김경모 (2009). 『방송심의를 위한 프로그램 분석방법 개발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윤영철 · 송현진 · 강기호 · 박민아 (2010).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토론의 조건: 평가지표를 적용한 온라인 토론 비교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7권 2호, 121~172.
- 이준웅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제46권 2호, 5~32.
- 이준웅 · 김은미 · 김현석 (2007).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제51권 3호, 358~384.
- 이준웅 · 김은미 · 문태준 (2005).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제17대 총선 관련 인터넷 게시판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9권 1호, 29~56.
- 최윤정 (2009).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이용 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 과정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3권 4호, 372~394.
- 한혜경 (2003). 인터넷 이용자의 여론 지각과 의견 표현: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3호, 189~221.
- _____ (2005).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적 자질들과 가상공간의 숙의 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9권 4호, 604~641.
- 황현서 (2008). Communicating Disagreement: Examining the Role of Discussion Civility and Disagreement in

On-line Deliberation. 한국방송학회 『융합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사회 변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와 이용자』 세미나 발제문.

- SBS (2010. 5. 9). 6·2 지방선거 여론조사...최대 이슈는 무상 급식. 『SBS』.
- Barabasi, A. L., & Albert, R. (1999). Emergence of scaling in random networks. *Science*, 286(5439), 509~512.
- Bar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dendorf, R., & Kaiser, C. (2009). Detecting opinion leaders and trends in online social networks. *Proceeding of the 2nd ACM workshop on Social web search and mining (SWSM '09)*. ACM, New York, NY, USA, 65~68.
- Bonacich, T. (1987).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5), 1170~1182.
- Burt, R. (1999). The social capital of opinion leader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6(1), 37~54.
- Cappella, J., Price, V., & Nir, L. (2002). Argument repertoire a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opinion quality: Electronic dialogue during campaign 2000. *Political Communication*, 19(1), 73~93.
- Coleman, J., Katz, E., & Menzel, H. (1957). The diffusion of an innovation among physicians. *Sociometry*, 20(4), 253~270.
- Freeman, L.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Gamson, W.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mson, W.,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immelboim, I., Gleave, E., & Smith, M. (2009). Discussion catalysts in online political discussions: Content importers and conversation starter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771~789.
- Huckfeldt, R. (2001). The social communication of political experti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2), 425~438.
- Huckfeldt, R., Beck, P., Dalton, R., & Levine, J. (1995). Political environments, cohesive social groups, and the communication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4), 1025~1054.
- Huffaker, D. (2010). Dimensions of leadership and social influence in online communit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6(4), 593~617.
- Katz, E. (1957). The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 An up-to-date report on an hypothesis. *Public Opinion Quarterly*, 21(1), 61~78.
- Kim, J., Wyatt, R.,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4), 361~385.
- Lazarsfeld, P., & Merton, R. (1954). Friendship as a social process: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analysis. In M. Berger, T. Abel, & C. H. Page (Eds.), *Freedom and control in modern society* (pp. 18~66). New York: Van Nostrand.
- Merwe, R., & Heerden, G. (2009). Finding and utilizing opinion leaders: Social networks and the power of relationships. *South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40(3), 65~76.
- Mutz, D. (2002).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Review*. 46(4), 838~855.
- Newman, M. (2001). The structure of scientific collaboratio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8(2), 404~409.
- Nisbet, E. (2005). The engagement model of opinion leadership: Testing validity within an Europea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3~30.
- Noelle-Neumann, E. (1984).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elle-Neumann, E. (1985). Identifying opinion leaders. *Paper presented at the 38th annual convention of the European Society of Market Research*. Wiesbaden, Germany.
- Price, V. (1988). On the public aspects of opinion: Linking levels of analysis in public opinion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5, 659~676.
- Price, V., Cappella, J., & Nir, L. (2002). Does disagreement contribute to more deliberative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19(1), 95~112.
- Price, V., Nir, L. & Cappella, J. (2005). Framing public discussion of gay civil un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69(2), 179~212.
- _____ (2006). Normative and informational influences in online political discussions. *Communication Theory*, 16(1), 47~74.
- Rhee, J. & Cappella, J. (1997). The role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n learning from news: Measuring schema development. *Communication Research*, 24(3), 197~233.
- Roch, C. (2008). The dual roots of opinion leadership. *The Journal of Politics*, 67(1), 110~131.
- Rogers, E., & Kincaid, D. (1981). *Communication networks: Toward a new paradigm for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Scheufele, D., & Eveland, W. (2001). Perceptions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25~44.
- Scheufele, D., Nisbet, M., & Brossard, D. (2003). Pathways to political participation?: Religion, communication contexts, and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5(3), 300~324.
- Scheufele, D. & Shah, D. (2000). Personality strength and social capital: The role of dispositional and informational variables in the production of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27(2), 107~131.
- Scheufele, D., et al. (2006). Democracy based on difference: Examining the links between structural heterogeneity, heterogeneity of discussion networks, and democratic citize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56(4), 728~753.
- Shah, D., & Scheufele, D. (2006). Explicating opinion leadership: Nonpolitical disposition, information consumption, and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3(1), 1~22.
- Sunstein, C. (2001). *Republic.c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lente, T. & Davis, R. (1999). Accelerating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using opinion leader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6(1), 55~67.
- van Dijk, T.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s, D., & Strogatz, S. (1998). Collective dynamics of 'small-world' networks. *Nature*, 393(6684), 409-410.
- Weimann, G. (1982). On the importance of marginality: One more step into the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6), 764~773.
- _____ (1991). The influentials: Back to the concept of opinion leaders? *Public Opinion Quarterly*, 55(2), 267~279.
- _____ (1994). *The Influentials: People Who Influence Peopl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ojcieszak, M. (2008). False consensus goes online: Impact of ideologically homogeneous online groups on false consensus. *Public Opinion Quarterly*, 72(4), 781~791.
- Wojcieszak, M. & Mutz, D. (2009). Online groups and political discourse: Do online discussion spaces facilitate exposure to political disagre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40~56.
- Wolfsfeld, G. (1997). *Media and Political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yatt, R., Katz, E. & Kim, J. (2000). Bridging the spheres: Political and personal conversation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Journal of Communication*, 50(1), 71~92.
- Wyatt, R., Kim, J., & Katz, E. (2000). How feeling free to talk affects ordinary political conversation, purposeful argument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1), 99~114.

(투고일자: 2011. 8. 31, 수정일자: 2011. 10. 27, 게재확정일자: 2011. 11. 2)

ABSTRACT

Message Quality, Structural Positions in Discussion Network, and Opinion Leadership: A Case Analysis of ‘Free-Lunch Debate’ in Online Political Discussion

Kyungmo Kim* · Hyunjin Song**

Focusing on the individuals’ structural positions and roles in the internet discussion network, this research explores whether and how the opinion leaders’ network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the message quality and interpersonal influence in terms of attention-drawing and response-generation, which prior studies often failed to fully explicate. Findings suggest that discussion participants with high message quality occupy more central positions in the discussion network, thus enjoy more attention and responses of other following participants. However, opinion leader’s network centralities, which tap the structural positions and unique roles in the online discussion network, systematically mediate the effect of the message quality on interpersonal influence. Moreover,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opinion perception and network centrality was found only on the majority opinion group, rendering the entire discussion structure toward more enclaved deliberation and group polarization. Taken together,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fluence of the online opinion leader can only be substantiated with participant’s central positions in the discussion network, which has been ignored by the prior opinion leadership research.

Keywords: Online Opinion Leader, Online Political Discussion, Message Quality, Network Centrality, Opinion Leadership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 Ph.D. Student, School of Communi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